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베네수엘라, 카라보보주에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컨'터미널 건설 계획	2
□ 모잠비크, 2015년까지 베이라항 처리능력 두 배로 확충	3
□ EWC社, 인도네시아 동 자바(East Java)에 LNG 터미널 건설	4
□ 우한시, 장강중상류 최대 규모의 장강해상운송센터 건설 추진	5
□ [공지] 신규 해외 물류사업 투자설명회	6

1) 연락처: 김찬호 전문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황현주 연구원(02-2105-2897, julya7@kmi.re.kr), 전해경 연구원(02-2105-2982, saei@kmi.re.kr)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베네수엘라, 카라보보주에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컨'터미널 건설 계획

- 베네수엘라 국영기업 Bolivarian Ports(Bolipuertos)와 CHEC(China Harbor Engineering Company)는 '컨'터미널 건설을 위한 계약에 사인
 - 신규 터미널은 카라보보(Carabobo)주 북측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주요 항만인 푸에르토 카베요(Puerto Cabello)항에 건설할 계획임
 - 푸에르토 카베요항은 수도 카라카스(Caracas) 북서쪽에서 약 200km 지점에 위치함
- 베네수엘라 교통운송 장관(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Minister) Francisco Garces에 의하면 신규 '컨'터미널 건설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에 전면 가동할 예정
 - 신규 터미널이 건설되면 기존의 화물 처리능력은 두배로 증가되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현재 개발 중인 철도 네트워크와도 연결될 전망임
 - 신규 터미널의 건설로 화물 선적 및 보관 구역은 38ha까지 확장되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컨테이너선(7만 톤)이 도킹할 수 있는 공간과 크레인 6기가 추가될 예정임
- 한편, 베네수엘라는 1970년에 마지막으로 항만 업그레이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항만 현대화를 위해 항만관리를 국영화

< 베네수엘라 위치 >



< Puerto Cabello항 위치 >



자료: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1.10.06.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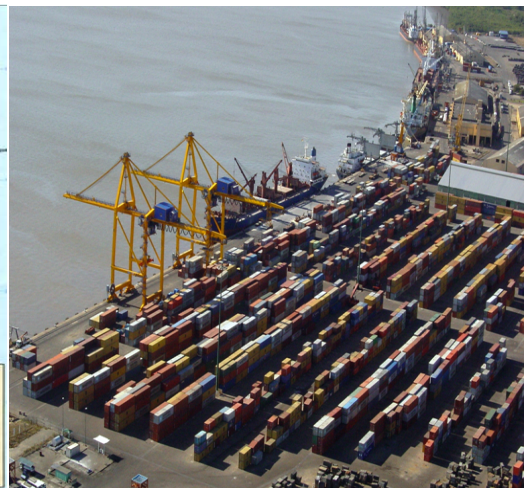
□ 모잠비크, 2015년까지 베이라항 처리능력 두 배로 확충

- 올해 베이라(Beira)항의 화물 및 컨테이너 처리량 작년대비 급증
 - 2010년 베이라(Beira)항에서는 129만 톤의 화물을 처리, 금년 상반기에는 72만 톤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량은 총 1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이 수치는 모아타지(Moatize)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수출하는 터미널을 제외한 것이며, 석탄터미널에서 처리되는 양은 연간 약 6백만 톤임
 - 2010년 베이라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0.5만 TEU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6.7만 TEU를 처리함
 - 올해 7월 베이라항만공사는 급하게 항로 준설작업을 마무리하여 현재 파나막스급(6만 톤) 선박을 24시간 처리하고 있음
 - 관계자에 의하면 항만 확장공사 완료 후 선박의 대형화, Sena 및 Machipanda 철도노선을 경유하는 화물 증가를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계획할 예정임
- 베이라항만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신규 부두, 비료 터미널, 설탕 및 담배 물류센터(곧 완공 예정) 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획 중
 - 또 향후 컨테이너와 화물처리 터미널을 구분하여 각각 분리된 처리방법을 통해 터미널의 혼잡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힘
 - 2대의 컨테이너 크레인 구입을 위한 공공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러한 터미널의 확장을 통하여 콩고와 잠비아로부터 오는 화물들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 Beira항 위치도 >



< Beira항 컨테이너터미널 전경 >



자료: www.dredgingtoday.com, 2011.10.10

황현주 연구원(☎ 02-2105-2897, julya7@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EWC社, 인도네시아 동 자바(East Java)에 LNG 수입터미널 건설

- 호주 법인인 EWC(Energy World Corpotaion)社와 동 자바(East Java) 지방정부는 LNG 수입 터미널 개발에 관련된 계획을 협의 및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 부분에 초기 협정 체결
 - 지난 10월 4일 EWC社와 동 자바 지방정부는 연간 3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LNG 수입 터미널 건설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동 터미널은 1단계 사업으로 가스전환(regasification) 시설 및 해양시설을 포함하고 있음
 - EWC社는 1단계 사업의 경우 현재 필리핀 Pagbilao에 개발한 LNG 터미널과 동일한 규모 및 사양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향후 인도네시아와 호주, 기타 제3국으로부터 LNG가 유입될 예정임
 - EWC社는 2단계 사업으로 LNG 터미널을 확장하고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도 가지고 있음
- 부족한 동 자바의 가스공급이 금번 시설확장을 위한 중요한 개발 요인
 - 현재 동 자바는 연간 300만 톤의 가스 공급이 부족하며 332개 기업이 충분한 가스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밝힘
 - 따라서 동 자바 지방정부는 원활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토지개발, 인허가 취득, 시설개발 허가 서류 등 EWC社가 필요한 서류절차 및 토지수용 등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터미널 건설 기간을 약 1년 반에서 2년 사이로 예정하고 있음

< EWC社 LNG 터미널 분포도 >



< LNG 터미널 조감도 >



자료: www.theindonesiatoday.com / worldmaritimenews.com, 2011.1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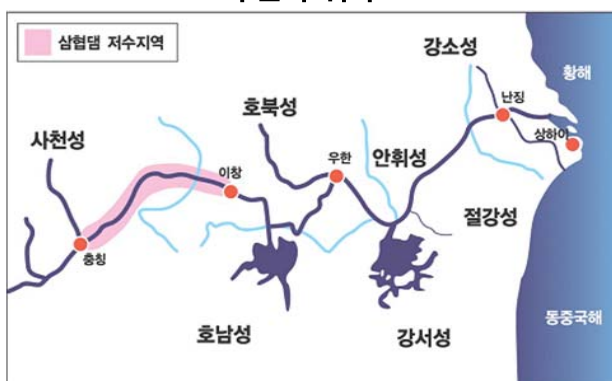
전혜경 연구원(☎ 02-2105-2982, saei@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우한시, 장강중상류 최대 규모의 장강해상운송센터 건설 추진

- 양루어(陽邏港)항은 후베이성(湖北省)에 위치한 우한신항(武漢新港)의 핵심항만
 - 우한항은 장강 중상류지역 항만 중 최초로 물동량 1억 톤을 돌파한 항만으로, 2010년 화물 물동량은 1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65만 TEU를 달성하였음
 - 양루어항은 우한신항의 핵심항만 지역으로 장강 중류지역에서 유일하게 수심이 깊은 천연 심수항(深水港)이며, 연중 내내 5천 톤급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여 화물의 중계과정 없이 일본, 동남아 등 주변 인접국가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음
 - 양루어항 2기공사 준공 후에는 연간물동량 100만 TEU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바탕으로 장강 중상류지역 최대의 컨테이너부두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 우한시는 '12.5'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장강해상운송센터를 건설할 계획
 - 양루어항이 위치한 우한시의 신주구(新洲區)에 양루어항 인프라시설 건설작업을 가속화 할 예정이며, 특히 항만 연계운송시설인 장베이철도(江北鐵路), 장베이쾌속도로(江北快速路) 및 이와 연결되는 티엔허공항(天河機場), 다광고속도로(大廣高速), 우잉고속도로(武英高速), 우한4환선(武漢四環線) 등의 통행로를 건설하여 개통할 것임
 - 항만의 정보화를 강화하고 수로운송, 도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 간 복합운송의 효율을 향상 시켜 항만 중심의 해상운송센터 업무를 활성화 할 것임
 - 또한 신주구에 양루어항 보세물류원구를 건설하여 국제물류회사, 국제해운회사, 다국적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인프라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과 해외 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복합운송과 국제무역 기능을 수행하는 장강중상류 지역의 최대 규모의 물류허브를 구축할 예정임

<우한시 위치도>



<양루어항 2기 조감도>



자료: www.chinaports.org, 2011.10.

이주호 책임연구원 (☎ 02-2105-2890, jooho@kmi.re.kr)
강지현 연구원 (☎ 02-2105-2967, jhkang0813@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공지] 신규 해외 물류사업 투자설명회

- 일시 : 2011. 10. 17(월) 14:30 ~ 18:00
- 장소 : 서울역 4층 대회의실
- 주최 : 국토해양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프로그램

14:30~15:00	등록 및 자료 배포
	개회행사
15:00~15:10	개회사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5:10~15:15	축사 전기정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
15:15~15:20	주요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설명회Ⅰ
15:20~16:00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신규사업 소개 -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16:00~16:20	질의 응답
16:20~16:40	Coffee Break
	설명회Ⅱ
16:40~17:20	미국 아스토리아항 개발사업 소개 Jack Crider 아스토리아항만청장
17:20~17:40	질의 응답
17:40~17:50	종합

- 참가신청 :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홈페이지(<http://kilc.kita.net>) 알림마당 → “세미나 신청”에서 직접입력

※ 본 사업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반드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역에서는 KTX 타는곳(3층) → 3층 역장실 입구 → 엘리베이터이용(4층으로 이동) 경로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